

감독이 믿음 주면 선수는 해 낸다…잘 되는 집 김학범호

오세훈, 조규성에 이동경까지…경기마다 해결사 나와

1경기 더 승리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금자탑’

김학범 입장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소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이다. 상대가 우리보다 잘해서 쓴 결과를 받아들여야하는 것은 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쓸어내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실수로 자멸하는 것은 곱절로 속이 아프다.

특히 연습 때는 그렇게 펼칠 날턴이들이 정작 실전에 들어가 날개 꺾이는 일이 반복된다면 팀을 이끄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할 것이 없어진다. 반대로 믿었던 이들이 그 신뢰에 부응하면 그것보다 수월할 수가 없다. 내보내는 카드마다 족족 통한다면 금상첨화. 적어도 지금까지는 김학범호가 그렇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이 지난 19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태국 방콕의 탐마삿 경기장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8강전에서 2-1로 승리,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4년 1회 대회부터 4회 연속 4강(4위→준우승→4위→?)에 오르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제 1경기만 더 승리해 결승에 오르면 한국은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됐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에서 23명 최종 엔트리 중 21명의 선수들을 끊어 하는 등 과감한 선수 운영으로 안으로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상대에게는 계산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뒀던 김학범 감독은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도 변화의

폭을 크게 가져갔다.

우즈베키스탄과의 3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린 오세훈을 벤치에 앉히고 대신 조규성을 선봉장으로 배치했다. 정의적인 패스 능력을 갖춘 김진규가 이번 대회 처음으로 선발로 출전한 것을 포함해 무려 8명이나 달라진 베스트11로 경기를 시작했다. 성적이 최우선인 대회에서 매 경기 이 정도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과적으로 선택은 또 적중했다.

대표팀은 전반 15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터뜨려 기선을 제압했다. 프리킥 기회에서 계획된 세트피스가 빛을 발한 결과다. 김진규가 짧게 내준 공을 김대원이 박스 안으로 올렸고 이를 정태욱이 머리로 따냈다. 정태욱의 헤딩 패스를 받은 이동준이 헤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골키퍼와 부딪혀 공이 떠올랐는데 이를 문전에서 조규성이 높게 솟구쳐 마무리했다.

이란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원발 중거리포로 승리의 경인차 뜻을 했던 조규성은 다시 떨어진 선발 출격 명령에 선제골로 보답했다. 물론 이후 추가골 찬스를 놓쳤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나름 뜻을 해냈다. 그 아쉬움은 조커 이동경이 채워줬다.

번번이 추가골 기회를 놓치며 불안한 리드를 이어가던 한국은 결국 후반 30분 요르단에 일격을 허용했다. 1-1 상황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돌입, 모두가 연장전을 떠올리고 있을 때 이동경이 번쩍였다. 이동경은 자신이 만들어낸 프리킥 찬스



대한민국 U-23 대표팀 이동경이 19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8강전에서 역전 프리킥을 성공 시킨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날 요르단을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2대1 승리를 거두 4강행을 확정 지었다

에서 직접 그림 같은 원발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팀을 위기에서 건져냈다.

이동경은 사실 이번 대회 ‘에이스’로 꼽혔던 자원이다. 23명 엔트리 중 유일하게 벤트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에 합류, 데뷔전도 치렀을 정도다. 지난해 3월 열린 이 대회의 예선전에서는 3경기에서 6골을 뽑아내는 결정력으로 본선행을 이끌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학범 감독은 이동경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고 승부처에서 교체카드로 뽑아들었다. 경기 후 김 감독은 “요르단전은 조커 싸움에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동경을 점찍었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다.

시쳇말로 둑자리를 깔고 앉아도 될 정도로 감독의 촉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1차전 선봉장으로 나섰다가 실망에 그쳤던 오세훈은, 우즈베키스탄과의 3차전 때 다시 신뢰를 받고 출격해 멀

티꼴을 터뜨려 2-1 승리를 이끌었다. 앞서 언급한 요르단전 플레이메이커 김진규는 직접 프리킥이 골대를 때리는 등 확실히 좋은 몸놀림을 보이며 역시 기대에 부응했다.

김감독이 믿고 내보내면 선수들이 척척 답을 해내고 있다. 전체 엔트리 23명 중 8강까지 4경기를 치르면서 폴타임을 소화한 이는 골키퍼 송범근이 유일하다. 되는 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김학범호다.

보상의 늘…양의지·안치홍, 2년 연속 ‘FA 이적’ 1명

FA 이적, 4년 전 7명에서 급감…절실한 FA 등급제 내년부터 도입될듯



2년 연속 FA 이적이 1명 밖에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보상규정이 중소형 FA 선수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개장한 2020년 FA 시장, 19명 중 14명이 소속팀을 찾았다. 그중 이적생은 KIA 타이거즈에서 롯데 자이언츠로 팀을 옮긴 안치홍이 유일하다.

안치홍 역시 KIA 전류가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롯데가 하를 찔렀다. 2+2년 계약을 제시하며 안치홍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4년간 최대 56억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이며, 2년 후 자유계약선수가 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안치홍 외 13명의 FA 계약자는 모두 원소속구단에 잔류했다. 아직 시장에 남아 있는 5명(김태균, 손승락, 고효준, 오재원, 오주원) 또한 이적은 불가능해 보인다. 모두 30대 중후반으로 보상금과 보상선수 출 힘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입할 수 있는 선수



들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FA 권리행사한 15명 중 이적생은 양의지(두산 베어스→NC 다이노스)와 김민성(키움 히어로즈→LG 트윈스) 2명뿐이었다. 그러나 김민성은 3월이 돼서야 원 소속구단 키움과 계약을 한 뒤 LG로 이적한 ‘사인 앤드 트레이드’ 형식이었다. 사실상 FA 이적은 양의지가 유일했다.

2년 전만 해도 FA 시장에는 이적이 활발했다. 황재균(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KT 위즈)과 김현수(불티모어 오리올스→LG)는 메이저리그에서 유턴해 친정팀이 아닌 다른 구단과 계약했고 강민호(롯데→삼성 라이온즈)와 민병현(두산→롯데)도 대박을 터뜨리며 이적했다. 채태인(넥센→롯데)과 최준석(롯데→NC)은 사인 앤드 트레이드의 시초가 됐다.

3년 전에도 최형우(삼성→KIA), 차우

찬(삼성→LG), 우규민(LG→삼성), 이원석(두산→삼성) 등 4명의 FA 이적이 발생했다. 4년 전에는 정상호(SK→LG), 윤길현(SK→롯데), 박석민(삼성→NC), 유한준(네센→KT), 손승락(네센→롯데), 정우람(SK→한화), 심수창(롯데→한화) 등 무려 7명이 유니폼을 갈아입었다.

팬들은 스토브리그를 통해 새로운 소속팀을 얻게 된 FA 선수들과 그에 따른 보상선수들을 지켜보는 재미를 느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FA 시장에 친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준적금 선수라도 영입해 전력을 보강하려 했던 구단들은 대여금이 아니라면 자립을 열지 않았다.

보상 규정이 이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요소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년 전 팀을 옮겼던 FA 선수들은 대부분 대형 계약을 맺은 대여금이었다. 이미 시장이 작아져 있던 지난해 역시 양의지만 4년 총액 125억원이라는 매매드급 계약으로 이적했다.

중소형 FA 선수들의 보다 자유로운 이적을 위한 ‘등급제’가 절실히다. 등급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014년 겨울부터 등급제 도입을 검토했다. 그러나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시간만 끌어왔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KBO는 이사회를 통해 등급제 도입을 결정했다. 12월에는 선수협도 KBO의 결정을 수용했다. 아직 등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정해야 하지만, 현재로서 다음 FA 시장부터 등급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나온 FA 선수들은 아쉽겠지만, 다음 시즌 FA 자격을 얻게 될 선수들에게는 반기운 소식이다.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전국 최강 확인

제34회 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서 금 3·은1·동 3 흐거

전북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이 전국 최강팀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무주군은 군정팀이 최근 강원도 평창 바이애슬론 월드컵파크에서 열린 제34회 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에서 금 3개, 은 1개, 동 3개의 성적을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3관왕(스프린트 10km, 짐단총발 15km, 계주)에 오른 현 국가대표 김용규 선수는 유럽 전지훈련을 마친 후 바로 참가해 큰 성과를 올렸다.

김 선수는 스프린트 10km에서 25분12초, 짐단총발 15km에서는 42분12초의 기록을 세웠다.

이준복, 최창환 선수와 함께 달린 남자 일반 계주 7.5km에서는 1시간05분22초의 성적을 내며 관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17일 열린 남녀 혼성 계주에서는 전북 체육회 김고은, 김상은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춰 은메달을 획득했다.

팀의 막내인 최창환 선수는 스프린트 10km 3위(27분03초), 짐단총발 15km 3위(44분18초) 차지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호엽 무주군청팀 감독은 “선수들이 유럽전지훈련 마치고 컨디션 조절과 스키 주행 페이스가 70%밖에 안 올라온 상태에서 대회를 뛰게 됐다”라며 “그런데도 선수들이 최고의 성적을 내 기쁘고 이 여세를 몰아 올해 남아있는 큰 대회들도 잘 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창단된 무주군청 바이애슬론 팀에는 현재 이수영, 김용규, 최두진, 이준복, 최창환 등 5명의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4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돼 뛰고 있다.

무주군청팀은 2월3~6일 제3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컵 바이애슬론대회를 비롯해 2월4~7일 개최되는 제10회 전국동계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다.

김용규 선수는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보통 20일 이상 최고 심박사격 훈련을 맞추고 하는데 이번엔 일정이 빠듯해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남은 대회들도 최선을 다해서 무주군의 이름을 드높일 것”이라고 말했다.